

明義錄諺解中

明
86
496



50
50
196



루 권이

병신년월병인지정유소월갑진

병인의나선히복츄흐다

선히드려웃조오시더셔형선상외종샤

의큰게교를위한일이여늘테므슴심창으

로감히음참두클조로방조히편지의벗노

다^{선선}의^{히제}상^{형소}소^{말부}말^{위히}의^음음^참참^한한^다다^하하^나나^라라^선선^히히

공소흐되과연신의글시너그새예그상소

를보지못흐옛습가의소상을아지못흐교

이편지를흐옛습나야다못조오시더네편

지 의 상 소 말 이 음 참 타 말 이 이 시 너 만 일 그
상 소 틀 보 지 못 하 여 시 면 네 그 상 소 말 이 음
참 하 며 아 니 물 었 지 아 라 네 손 으 로 이 두 글
주 를 벗 는 다 공 소 하 되 조 보 를 보 아 습 기 아
랏 소 오 되 그 속 을 아 지 못 하 엿 습 기 로 이 말
숨 을 하 엿 습 나 이 다 못 주 으 시 너 두 글 주 흥
호 말 을 네 이 덕 천 히 버 시 너 이 너 희 단 안 이
니 소 속 히 지 만 하 라 공 소 하 되 범 상 부 도 로
지 만 하 니 결 안 하 야 정 형 하 고 첩 산 여 법 하
다 ○ 너 북 히 를 국 문 하 여 못 주 으 시 너 서 명

선위상외 종샤의 큰 계교를 위하엿거늘
네 흘노므슴임으로 감히 망추흐의 논을
버엿는 다 너와 의논이 낫고 심정이 낫흐사
령이 이제이 위드러나 시너네 비록 숨기고
자흐들 어드라 부히 공소하 되셔 명선의 상
소를 처음은 그 잘흐 줄을 아지 못흐임과
조정소문을 전혀듯지 못흐와 다만 소론이
노론을 죽이고 저흐 단말을 드릿습나이다
못츠오시던 그 말을 어 늦곳의 셔드릿는다
비급테 호아들이 어시너 왕너하느니 푸지업

스랴공소호되신의아들이귀향도라운후
의다만홍상간를가보앗습는이다못조오
시던전년부터너의무리던장이이의드러
나고어제네슈적호는군소로더브러슈작
호던일이또호이의잡히여시너엇지감히
숨기리오인호야션히의결안파제게호홍
셔를너쳐빈대공소호되신의아이곡절을
아지못호고셔명션을그르다호야이편지
를호엇습기의신도또호범연이보앗습는
이다못조오시던이러호홍셔를내어이상

즈의곰초와두엇는다공소흐되동정으로
지만흐옵느이다뭇조오시디운약연의상
소를네엇더타흐느효공소흐되약연을느
출모로되블파이닌한의식격으로아옵느
이다뭇조오시디네엇지아는다공소흐되
사름이다이러닐으옵고닌한이약연으로
옥당을식엿습기로약연의상쇠낫다흐더
이다약연이호반의손조로써옥당을흐엿
소오니닌한으로터브러소성지편줄을가
히알거시오닌한이약연의아즈비로더브

러서도 절친한 기의 마음을 다난한 기의 논
한다 하터이다. 전디라 복히의 죄를 가히
이거여다 소리라야 노션히잇고 아들은
경빈이이시니 아와 아들의 흉모와 난언
이. 렷트, 시낭자하니 제감히 집의이셔아
지 못하리오 동신의 상쇠. 종샤의 큰 계교
를 위하여시니 진실노 왕망과 조조와 소마
의와 환온의 믿음을 든재아니면 누갑히이
사름을 해홀 계교를 두리오 제아오, 노흉악
한말노 배방조히 제게 편지를 하고 제아들

은나라우익을 제거하라는새로상간의무
리 각훈가지로난만이쥬무하고저는소론
이노론을죽이자한다살노버저희중어린
무리의만훈게교를철습_잡이_만말_하나날
은바빅죄훈씨발훈이라나라법으로써혜
아리면머리보전하기어려오되다만나히
철십이지날뿐아니라말을듯고모양을보
니결단코평인이아니니엇지반드시김이
최망하리오즈테적르비록나라의고치못
하나제공소로버보건대동정_정으로지안하

나지정함을엇지가히면항리오할는의난
언범상의지정죄는호등을감항니복히를
당일빅뉴삼천리항라항시너드뒤여갑산
부의경비항다

신등이근안선히홍항고웨홀호성으로
퍼더럽고퍼려호힝실이이셔그형복히
와맛그족하경비으로더브러의논이회
샤호고거지광패항니사름이다지목항
논지라닌한이용소호후로붓터인아를
밋고

인아논년한의집과아강항야붓솟

기르종이 상전섬기는 것긔치호고도상
간파흥블로테결호야왕니호고모의호
야닌한의소스사람이되안지오란지라
선대왕이우리던하를명호샤나라
정소를더령호라호오시니닌한이이
에감히저희호느니라그씨의둥신이상
소호야닌한을비척호야말이엄호고의
리당대호니선대왕이블너보오샤포
장호시고닷신만의대척이일오니중
외청명호거늘선히제형의게훈편지의

음참함, 다닐이니 그 어인묘, 옹고대 개선
히닌한의게 북쪽 초오직역적의당이형
세를일할가저허한고로등신의상소를
갑히의위함, 야이런부도옛말을함, 나통
분함, 기를엇지이과며통분함, 기를엇지
이과리오

민옹됨이복주함다

함됨의게못조오시디셔명선상소는
종
샤의큰게피니만일이사름을모해함, 논사
를이이시연아는
종샤의역적이로되어

도오히려완호일이라좌승디홍국영은공
판으로이실제부터상궁을보호호야척슈
로하늘받치는공이이시니무릇이사람을
해호랴호는자논인나라우익을제거호
랴호홍호모음이라즉우호후에다른의장
호는척속이업고나라하외롭고위티호기
능연히한심호저라오직이호는신하를어
에의지호코어에밋거늘반드시장살호후
에긋치고저호나그모음먹은배장춧어는
자경의너르리오좁무하모의호야계피터

옥급하니 궁흉흔심장은길사름도아는배
라이번모든억적의쇼소의너의정절이드
러나시니종살히지고하라흥낼어공소하
되일주널오되흥난한의세다지곳하야아
람족지아니탄말이한악모의족히근심흔
거시업단뜻파더브러웃흔줄노아읍고흥
국영이궁관하야실새에사름이혹스철이
잇는고로신도쓰흔흔가지로엇더흔말을
하엿습니이다못조오서더궁중에성서공은
공공은차는곳테라흥상간의문서에테일

흠이잇고운약연의 초소의 쏘닐오타너와
 동정의라흐나네정상파자최이익다드러
 나시니엇지감히속이리오공소흐되하
 피이익통속호오시니엇지감히발명호리
 잇가홍상간파운약연으로터브러파연친
 호우의다못주소시디네명취목소와안악
 군슈를나점안니호얏다호고원망호는
 말을두로전호니이논선쵸에셔하교
 호샤디점 점정은 선쵸의서정소회
점호사름을 추교 선쵸 동
 점호신일이라호나 호일안속비엇지감히

좁에 흘녀 드려 보내 니 네 몇 곳에 탕설하얏

는 다

슈작호 말은 의
스 변 흥 노 이 라

공소하되 신이 파연 말

을 하얏스오 니 몇 곳에 탕설하줄을 모로오

되호곳에 탕설하오면 태태전설하야그러

하오니 스스로 무식하은 줄을 아옵고스스

로 죽을 죄를 아오나 다맛당이 지안하오리

이다 못조오시더네 큰 죄에 이뉘승복하야

시니 굿하야 다시 못지아닐거시로더셔명

선상소후에 너의 동당이 령정으로 배엇더

타하노노상노지히의게 하편지에닐오되

귀관이 음비하고 경상이 위패다야시
너네 상간으로다 브러 슈작 흘썩에 반드시
이런말이 이질거시니 그직고하라 공소하
되 파연여 초여 피하단말을 하앗습니이다
못주오서 디여 초여 피하단의 논을 적고하
라 공소하되 말과의 논 흘썩의 일즉 배하되
닌한이 곳하야 역적이 아니라 하앗습니이
다 상이 명하샤 전디를 쓰이셔 흥녕노하
여 품듯게 하야 골으 사디셔 명선 상소를 오
졸 날신지진실노맛당이 하가지로 하올것

치말호야 다시 다른 의논이 업슬 거시어 논
너희 무리 무릅쓸 다히고 머리롤 모호며 옷
깃을 년호고 소매를 잡아 부도호말을 두로
전호고 망측호희를 서로 닐너 집안희셔쥬
무히모의호고 편지사의 의왕복호나 이를
가히참아 호진댄 무어 슬참아 못호리오형
정에 다른 의논호는 재역적이로디 상궁에
판계호일에 비겨셔는 오히려 완호일이니
불가불호변호유호야 닐노호여 품의리모
로논 귀신이 되지아니 채호지라 국개저스

음귀 춘궁에 이실 제흔얼의 우리와 효경의
뉴드리 쉼야로고만 이엇고 착우로만 이
탐지하느 재곳이 저군의 우익을 제거하
고 저군의 심지를 현난하코 의혹게하느치라
이런고로 모릇근 시복어와 밋악정에 천예
들을 다저의 복심과 조아를 버려 국가의 혼
언동과 혼어목을 뜻고 아지 못하느 일이 언
스니 이새를 당하야 국가의 오슬그르고 참
슈하지 못하재도 혼멋들인 출모로니 저공
의 의롭고 위티 흥이엇티하며 국세의 어려

음이었더료 가히급급히워티롭다닐을지
라특별이훈공관의저궁을보호함을힘입
어국개시러곰오늘날의닐으니무릇이사
람을해하랴계교하는자는은우익을전
제하랴하느홍심이라이런고로경정훈후
에간악호씨더욱급하야요피로운상은을
불너내여번복홀계교를하야저희무리배
하되봄의 담휘적이낫조오신새에상은
의상셔를구만이알외면 님문하실거조
를가히버손바닥에춤밧고기드러려라하

니슬프다 이무슴모음이 노저의 무리또하
되공판의 온실슈를 사혁하야 무르면일이
가히일우리라하 니슬프다 네부터 녀의
동공판속을 다스린적이 옛날세안디저히
무리외를 비포하고 계교를 베푼 밧재과연
엇던일이 노일노 배경영하야 납월이 십일
일에 안흐로 성찬을 나오며 밧그로 상은의
상셔를 드리고 저희 무리또하 되오늘날파
가 보시닌 일노 보와도 성휘님문하시기
에 어렵지 아닌 줄을 가히 알지라하 더니 다

형이하늘어는 종국을도으샤 성감의불
이통축흐샤요피로온상운의간악호게피
발뵈지못호고토역호는공의이에형호지
라즉위호후당초에틈을엇는무리다소제
호는가온대이셔배찬백호고후소죄로쳐
단호재이시나오직저희틈을엇는무리척
너반이나그가온대이사니닐온바척나는
다국가와맛셔고국가틀원슈깃치원망호
는사름인즉궁호도적의게피어는곳의나
르지야니리오우라나라척니비루나라호

흙은 나라의 제 거 흙을 기드 리지 아 녀 도 알
거 시 니 천 나 스 이 에 국 가 를 번 병 흙 사 름 이
업 고 라 번 병 은 다 라 흙 아 궁 위 가 온 대 국 가 를
보 호 흙 사 름 이 업 스 니 그 고 위 흥 표 능 연 흙
이 또 호 전 의 비 처 못 흙 지 라 동 궁 에 이 실 제
로 부터 배 오 늘 위 니 르 되 무 옴 을 다 흥 약 보
호 흥 는 제 다 만 이 흥 낮 신 하 뿐 인 주 반 드 시
장 해 흥 후 엔 알 고 저 흥 니 그 무 옴 은 그 흥 노
의 아 논 배 라 모 든 역 적 의 초 스 의 정 철 이 다
드 러 나 시 나 근 제 이 뒤 곳 고 경 영 흥 이 또 흥

오라야 그바로 손배 좀 덕흐던 새 로부터 흐
니 외면으로 금히 보면 본소로 더 브러서로
관섭지 아닌듯흐나 그 처음은 호호 줄 노난듯
흐나 아모일이 나 아모말이나 너희들의 호
바를 더희들이 아지 못흐랴 저 군이 신하의
게도 호호 군신분의 이시니 인신으로 셔저 군
씩분의 업논 자를 가히 순전호신하라 널으
랴 곱호호스이에 도오히려 착호일은 남의게
일코고 허물은 내게 도라보내거든 호호 불며
군신의 분의 나 춘궁의 덕을 길너 아참셔 덕

으로 강논함이 불과 경셔와 소피 뿐여 너무
어시 저희 무리의 간예 호판더허다 호부언
을 지어 배여 전호야 날으니 엇지 녀희 무리
의 단안이 아니리오 녀희 무리의 호호 썩녀
희 무리로 좃츠 할녀드지 아니면 나라히 엇
지 배알니 오공관이 설소무상 호사름이 이
셔 후무상 호말을 호야 도나라히 아이예 더
답지 아니 호족 엇지 슈작 호논말이 이시리
오그러면 공관의 비록 무상 호나적 온이 능
히 짐덕지 못 호논 줄을 가히 알거시오 설소

네희무리의부언코흐야즘턱흐는색의파
연가히근심홀일이잇다흐야도맛당이집
을우러러기만이탄식홀거시어늘엇지감
히저희무리의게전흐며궁중의전흐야궁
관을구박흐고져흐다가도로혀져군을평
박흐리오너희무리나라홀농낙흐노알과
나라홀을잡는죄를가히홀붓으버쓰지못
홀지니네부언중의적은일노로될너도그
색에정스쿠낙점이곳디점흐던썬즉네형
쥬와안악망의낙첨거르기로버두로원

망_하고_하썩_하짓_는말_을전_파하_야곧_오디_이러
이_러타_하니_이거_시네_게는_비록_적은_모드
나_네전_하야_닐으_던곳_을그_가히_소기_라천
가_지죄_와만_가지_사오_나음_이네_몸의_얼히
여_시니_여귀_하나_만이_셔도_나라_밤을_도망
키_어럽_거든_하를_며이_고금_의입_스죄_악이
라_하녘_이드_되여_난언_범상_{으로}배_결안_하
니_정형_하고_적산_여법_하다

신_등이_근안_하녘_이문_정파_문충_은

은_고정_하는_고충_은

신_민유_동이_오문_충의_손주_로배_결못_은
은_고상_신민_진원_이라_의손_주로_배결_못

호고외람이급테호야스스로버호되명
가조손이로라호야벼솔을저와더브러
뜻호와압셔리업다닐너이의진슈의뜻
이생르고또호시나라권을잡음을보고
드디여호시롤의지호고상간으로더브
러친밀호벗이던얏논지라상간이본디
호시의사름으로버후침을테결호되더
체가번야와조립호를길히업더너이목호
를을어더차등호매성세와당이더욱더
르니호별의그릇치고싸지미일노말미

암아 더욱 깊흐니 지라 으랏 흥흥 무리와 역
적의 땅이 흥시와 후범의 북심과 조애되
야 들나라 흥가히 항거하리라 흥며 흥디
령을 가히 더하하리 카하느 재 흥몽치도
지아 나리 업 손즉이 에 흥벌이 곳하야 날
마다 후범과 닐한 의문의 출입을 기다리
지아 나 셔문득 후범과 닐한 의사름이 되
얏는 지라 이 세의 흥시 동궁을 보호하
단 말을 향설하야 저를 치는 자로 배 동
궁 썩어 나치아 나타하느
이 세 흥도 들이
안 흥 온 오 되 흥

서평안하야니홍면
 너사라라하야홍시
 다 등공서니차아니
 구와봉휘못차났다
 계피장춧착호사롬을
 망타호고인심을
 광후호라호는지라
 흥불이이말호는재
 가히벼수정을현란
 케하야거의그흥시
 의붓조는권릉을스
 스로플듯호즉그
 음이더욱괴탄호는
 배업스지라이에
 흥시를위호야적
 권을협박호즉
 태복이란말을
 나오고비도
 배도아라
 구로말미
 아나와쓰이
 기를구호
 즉괴스
 년말을
 지

으되 다 발되지 못함즉 스스로 죄등은 줄
을 알고 여적의게 붓쫓는 씨를 더욱 크게
하야 드디어 처궁외 노호음을 품고 궁
관을 원슈처로 보와 쥬야로 쥬무하야 부
연을 쥬장하야 버전체하고 위킵홀게 교
를 함이 쥬닌한과 후겸으로 더 브러 몸이
다르나 창조는 갓하니 슬프다 쥬호호하
도다 오회라 교해이 의쇠하매 법개돈져
패하야 권문의 몸을닐코 벗업을 업치는
재만히 이시니 슬프다 고가대쪽은 나라

숨기고 성식을 통하니 이 그 세도의 해도
옴이 또 호몸을 버려복수하니 자의 비길
배아나라 그 법을 천하니 싸히기 만이서
로 주며 바다 언의 에 무드니 바와 정신에
슈전하니 바의 절노그 심장이 밝고 입을
씨듯지 못하니 이런 무리의 버넘치를 버
리고 공의를 바와 역적 편을 부드려 죽어
도 총아 늦치 못하니 자니 이 그 비니 하며
지 회하니 야스스로 내닐으되 만세에 태산
반선기치편안함을 탐득하니 노라 하니

엇지 대성인의 흥시는 배심상의 만만
이나 샴과 굴이 새치고 일만일이 하여져
져 즈음되니 료도 모흥던 배도로 허해되
미이러 트시 셤을 줄을 허아려 시리 오셔
상의 공교로 일 게 교흥고 추피 흥는 재산
흥가 히 버 경 계 흥진 저 네 공 지 비 부 의 해
를 의 논 흥야 굴은 샴 되 진 실 노 일 치 른 근
심 흥면 니 큰 지 아 닌 배 업 다 흥시 니 쥬 지
히 석 흥 샴 바 로 역 적 의 니 료 후 의 야 말 니
라 흥시 니 성 인 의 말 숨 이 엇 지 파 흥시 리

우신은닐오디후검과닌한의역적되음
은알기쉽고흥년의역적되믄보기어려
은지라그럼으로가히버분변치아니치
못하느이다

니샹노를국문하야승판경폐하다
샹노드려못주소시되전년령정훈후의네
닌한의무리를성죄하야토역할써에데후
글오되괴판이음비하다하고경상이위티
하고무섭고풍식이아름답지아니하니비
위를당치못한다말노배소연이편지에쓰

나만 남지 배망속 허다 허고 허도 허곤 오되 허영정의
 허신 일아 허고 허이 음비 허고 허경 상이 허아 허롭
 고 무섭다 허고 허이 음비 허고 허경 상이 허아 허롭
 허기 허비 위론 허치 못 허노 허아 허이 허허 흥
 아 지 허의 문 서 증 의 현 착 허나 허아 허이 허허 흥
 허말을 못 태 구와 봉 회 의 날은 지 못 허 배 어
 놀 네 무심 심 장 으 로 이 런 부 도 의 말 을 허 아
 노 노 잡 히 인 편 지 를 내 여 너 를 보 니 이 거 시
 네 손 조 쓴 글 시 아 니 나 상 뇌 공 소 허 되 신 도
 엇 지 허 아 편 지 허 줄 을 아 지 못 허 오 너 일 만
 번 죽 어 도 아 감 지 아 나 허 외 닥 못 오 서 더
 그 때 에 텅 정 으 로 버 기 판 이 음 비 타 날 으 기

는 너희 무리의 흉다 반으로 흉노 말인 표로
편지의 쓰기에 니르러 조곰도 귀탄함이 업
스니 일일히 적고 흉라 풍소 흉되하 놀이 그
덕 술아 사이 편지를 흉야스 오니 다만 셤니
죽기를 원할 따름이로 소이 다투지 오시 디
네 편지 중의 써 흉되 티는 별의 날 지 허 름 이라 시 방
외 임의 이 사니 무심복 녀 인 그 흉니 행의 지
호편지 소 외 임으로 버 복 녀 잇다 흉니 그 뜻
연이라 소 이어 디 잇는다 풍소 흉되 이 의 사 돈 인 그로
이 말을 하였는 이 다투지 오시 디 무심일이

귀관이 되며 무심일이 음비호요공소호되
신이 이마이네즈를 벗소오니 맛당이 범상
으로 써지만호리이다형문삼초의물고호
니냥식 계소호되상노의편지뜻이음참
호고말이 흥패호니제이 의손조벗노라지
만호였소오니 맛당이 노적호는범을베플
지니이다 쫓차계시더니이윽고특별이
전교를 누리와조일사디법은 언하의평
훈거신라비류인군의놈함으로도감히며
앙차못호는지라이럼으로소죄를결단호

매죽지아디흐야셔반드시결안을밧고이
의죽으면반드시늘문대로흙은꽃우리나
라소박년밧고지못홀덧덧호법이라저즈
음셔호죄슈를생일죄슈는동당의전례를인
증하야쓰미동령은을취년역적인니당비
폐후의역홀을밧논이라
록일시징토를엄히흐는뜻으로나시나이
엇지법은턴하의평호도리리오이후는결
안아니코역늘쓰는자와이죽은후에츨
후하야노적하는자와버금늘노결안하앗
는디극늘타하기를청하는자를일병덜나

호시다 버금 높음은 대역지 초호이 또 명호

샤디쳐분이 선조의게 신자외에는 일병

이하교대로 시행하라 하시니 이에 다만 상

노의 제조를 산비하라 명하시다

신등이 근안 상노는 곳난한의 철당이오

지히의 소성의 벗이라 동산이 난한을로

죄홀씨의 지히의게 편지하야 흥패호말

을하니 슬프다 선대왕이 종샤를위

호야 디형을 명하샤 소피츄달호

서고 슈위광명하시거늘 상노이에

만이다른뜻을먹어그이되턴디틀가히
소기며일월을가히그리오리라함야감
히곧오되그관아음비함다함고등신의
상쇠나매역적의빌미비로소색기이고
위턱로온귀틀이덩함야소빅년 종국
이반석태산고치평안함이어신즉상노
도로혀분애함고의위함야감히곧오되
경상이위패함다함고풍식이아름답지
아나함거에비위를명히기어렵다함그
재노호호흥특함고불을함히기로말미암음

이니여귀가히그창조의썸치고비에귀
등함이도모지이역심인줄을알지라대
개그흉흉정절의얼기이고근만흔씩어
므드러 대척을불만이너겨본던 나
라와각승코져흐는고로무임으로나셔
알노형용흐야편지에쓰미이러트시그
궁흉흐고절패흐니슬프고통분흐다넷
적의 경묘겨오셔 선대왕을명흐샤
다리흐시니모든역적이나라할무망흐
야방조히쥬장흐더니이재상노의흉역

부도흥이 못더흥지라가히이괴여다
스리라

흥지흥를국문흥시니승관흥다

지히드려못조으시디네집문셔중애흥편
지이시니형정씨에팅좌상의만논배망츄
흥다흥며괴관이음비흥다흥며경상이위
패흥다흥며풍식이도치아니타흥며비위
를딩치못흥단말노버소연이편지흥야시
니편지흥자의음흥파츄흥은진실노가히
다닐으지못흥거시어니와네만일평일에

호가지심장이아니면제엇지감히이런말
노배왕복호는셔찰에올니며네이편지를
본후에진실노일분인심이이시면엇지감
히범연이보고상조속에너허누리오이호
일의너의형경을볼만이더기물쇼연이그
리오지못호리로다지히공소호되신이그
편지를보고밋치엄시치못호엇습는이다
못조오시더네이런뉴로더브러호가지심
장인줄은진실노일즉알거니와엇지호야
셔셔명션의상소로배괴판이잇다닐은

니네상히 흥닌한 이로더 브러심장이 흐가
지라령정호후에닌한이 불노터 브러귀관
에일을호고저호야네답장이시방여귀이
시니너와다 못닌한이이에셔큰죄잇는줄
을이미통촉호거너와이제귀관두조로버
몬적무르니그적고호라공소호되답장중
에귀관이란말숨을호엇소오니악호신이
스소로죽을죄의싸지온지라신이인시무
삼호고로버이말을호엇나이다 못조오시
되네비록인시무심호로라호나네엇지귀

관 이란 말을 쓰리으 공소 하되 귀관은 본디
묘리 잇단 말이니 령정을 귀관이라 불러
소오너 죄일만 번 죽소와 합당하온지라 흥
흥놈으로 더 브러년 가 하야 서로 찬하 입고
또 먼디 잇소와 무소일이 잇는 줄을 모로
고 그리 하엿는 이 님 못 오시 더 상노의 편
지의 다만 귀관 쓴 거시 아니라 소음비란
누즈를 버시니 네 응당 그 속을 아논 고로 답
장이 잇고 령정 후애 네 소상노의 개편지
하야 버하되 풍패 곳 친 새 업다 하너 이논 엇

던 풍패 노공스흐되 이논 조정에 풍패 조준
고로 벗는 이다 못조오서 더 텅 정은 나라 큰
경시어 놀감히 이런 말을 하니 네 비록 범연
이 보았노라 흐나 지정의 놀을 면치 못흐려
든 흥을 며 네 편지에 또 귀 판이란 두 지 이시
니 엇지 배 발명 흐리 오공스흐되 그편 자를
보되 고 변을 아나 흐고 그편 지 틀며 물너 두
어시 나 맛당이 지정 불고로 버지 만 흐로 이
다 못조오서 더 난 한의 무오의 태가 제일이
되 어 정승을 흐이 고 저 흐야서 명선 일세를

장차호그물에타진코져호나 선대왕이
동축호오시기에시러곰그계교를발보지
못호야사니그죄닌한으로터브러호까지
오또상되이런음참호편지로배왕복호배
이신즉어논상되네모음을아논고로이편
지롤호고너논이에삼상이보니상논오
히려너의출되오너논이피슈니이거시동
정이되덕엇지다만저정뿐아리오공수호
되만일동정호야신즉엇저동정으로배자
만을아나리잇가지정불고로버지만호는

이디 못조오시디네 상경후후에 반드시슈
 작후사름이이실거시니 그직고후라공소
 후되 상경후후에 신대년의와보논고로신
 이버후되닌한이엇지봉승치아넛논고후
 온즉대년의배후되외검후야그리후이니
 후검의당뵈과야엇지 텡정을불만후사
 롬이이시리오후터이다 못조오시디려판
 이란말이사름을남간의가도단말의비겨
 도십비나후참후니 상운이후국후적의후
검이후등후공이어
 이사름을남간어가도리너희무리중에반
 오후야후후말을후니타

드시어련취만흔거시니엇지바토알외지
아닛노어제문셔춤에잡한바성명을바
르고흐라김춤우라흐느니느취노공소흐
되김상익이니이다못조오시되상익이무
슴슈작이잇더노공소흐되외곡반에셔만
나온춤버흐되양휘홍시를붓쫓차일을버
고져흐다각못흐엿다흐더이다또윤상후
의게듯조온즉셔명선상소후에셔문의다
시종해낫단말이잇다흐더이다

종학노신
추년일경

의소학전셔종해너이때에흥도들
이셔명선을종하외계비기나라
고상

를나국하야종해라흐던알노버지히와터
브러면질할후에형문일태흐고방귀전리
흐다전디라지히나라후은을바다벼슬
이정경의오로니므릇충역의리에터욱맛
당이절엄할거시어늘홍홍무리를모도야
홍홍의논을슈장흐야다만터브러언논소
아에슈무홀뿐아니라또흔스연이셔찰가
온대왕독하니크심장을공쿠흐면형노토
아는배라형정전의사름의게헌편지이셔
저공일노베음참호슈작을홍이이익이죽

을 죄여 논호를며 텡정호후에 상되편지를
 호야 텡정청호는 상소를거관이 음비호다
 님으고 텡정일을 경식이 위패호다 님으고
 또 베타호되 풍식이 요치아니 호야 비위를 텡
 치 못호다 호고 그 밧과 다른 흥언역 설이가
 히 입을 터러이지 못호거 시이니 이논구
 회와 경몽의 감히 님으지 못호던 배라 상노
 의 편지이 미쿠히 흥악호고 지히의 답이
 더욱엇지만 만흥악지아니라 진실노 일본
 인 심이 이 시편이엇지 범연이 볼거시며 제

또 흔히런 말 노 빠 디 답 하야 상 조 의 너 허 두
어 심 상 호 말 노 보 드 시 하 니 이 호 일 의 지 하
의 텡 정 응 을 불 만 하 던 무 음 을 쇼 연 이 구 리 오
지 못 할 지 라 사 름 의 신 죄 되 야 이 런 심 장 응 을
두 어 시 니 이 뭐 려 디 소 의 의 용 남 하 야 두 기
어 렵 거 든 이 도 오 하 려 부 족 하 야 등 극 호 후
의 셔 문 의 다 시 증 해 낫 단 말 을 사 름 과 더 브
러 슈 작 하 니 모 루 어 려 진 죄 범 을 제 이 뭐 개 개
히 지 만 하 니 맛 당 이 삼 척 으 로 배 논 단 호 기
시 로 더 이 런 흠 설 은 상 간 이 곳 와 쥬 오 지 하

는 또 호호우애한 거신라 법을 의논하며 가
히 용서할 도리 잇고 정을 궁구하며 가히 공
측함도 덕이 시니 참작하여 결단함이 오직
과비야 이호는 법의 해롭지 아닌지라 이의
일차 형문을 베퍼시니 지히로 감수 명비호
라 은성부의 텅비호였더니 후에 추주도의
음겨 천극하다 ○ 흥찬히 늘 국문하여 못조
오시 덕서 명선의 상소는 못조 총샤의 큰 계
피어늘 구회파 경몽의 감히닐으지 못호던
바로 버네 형의 개편 지호 재이셔 어의 드러

나 청법호야 신즉너희 무리의 역절은 이제
가히 날을 거시 업고 좌승다 흥국영은 궁관
의이실제로부터 위급호색을 당호야 척슈
로하늘을 밧치논 공이 잇거늘 반듯시해호
고져 흡은이나 라 우익을 제거호려 논 민음
이라 호를여 즉 위훈후엔고 위호고 늻연호
이 또 호이전의 비치 못할지라 오직이 호날
신하를이 예의지호고이에 밧거늘 반듯시
죽인후의 말고져호고 또 국개동궁에 짐덕
호던새 예너와 다 못약연의 무리와 파츠헌

정절이 모든 죄인의 초소의 다 드러나 시니
비록 발명하고져 훈들어드려 찬히 공소하
되 공판을 장살하고 서로 부언을 적어 내던
일은 일즉 입의닐으지 아니하고 입고 또 약연
파 흥벌로 더브러 서로 찬하야 슈작훈일이
업소오되 신의 족하상간은 약연과 흥벌로
더브러 과연 서로 찬하던니 이 타 못조오시
디 흥훈말노 배비형의게 편지 훈자를 네아
논다 공소하되 님 상된가 시브와 이다 못조
오시디 너의 형테 그편지를 보고 배엇더 타

흐였는다 공소흐되서명션의상소를충적
으로나지아니타흐였던듯흐와이다못조
오시디그편지를보고경심통괄치아니
고보기로흥다반긋치흐니네모음의잇는
바를가히알지니상노뿐이아니라너의도
당의모음이다이하고로그흥흥편지를
심상이보왓도다공소흐되산의보온바는
살핏흔말인듯흐와이다못조오시디이러
흥흥흥편지를보고다만살피스로아니엇
지역적이아닐며네말소리가볼만흐니더

옥무엄호지라 다만상노의왕복호흥셔썸
아니라베형이셔올도랴온후의이런말노
배난만히슈작호야베형이이의지정불고
로배지만호야시니숨기지말고바로고호
라인호야상노의흥셔를내여퇴시고못조
오시던어느구절이흥호말이되느뇨공소
호되보온즉호구절이파연흥호와이다못
조오시던이제야비로소흥호편진줄을아
는다앗가살피시란말노되담호가논어인
일고공소호되죽을바그다른도리업느어

다못조오시디네호구절노배흥흥다호니
므슴구절노배흥흥다호니노흥소흥되경
상이위패탄말슴이흥흥와이다못조오시
디국가령정이엇지호야괴판이이시며엇
지호야비위를형치못홀다호니노이런곳
을심상의보아앗가이의샬핏호단말노남
공호고이제다만호구절노배흥흥다호니
엇지역적이아니리오동경으로배지만호
라공소흥되앗가는다만호구절만보고밋
쳐주셔히보지못호엇더니다다시생각호

은즉과 판두조도또흥흥오이다 그편지를
보고즉시고치못흥야시너지정으로도지만
흥나이다못조오시디엇지가히심상지만
을흥리오너려세가지말노배못나니흥
나은상노의편지일이오들은흥국영을장
살흥려논일이오세흔국개농공의이실새
에부언을붓쳐번일이너다즉시지만흥라
공수흥되맛당이지만흥오리이다전디
라찬히본죄에경동은의논치말고상노의
무리흥흥말파흥흥편지를그흥흥의즐거울아

지못함고도장현의셔흥셔를내어빈후의
그남공훈배대테훈가지니저도또훈병의
의무임이이시니어인심장인고또훈물
며공소훈씨에그발악함은배더욱극히흥
팅함야플경에제또훈지만함여시되상간
이이의괴슈되어브야함로의를함니특별
이광탕지현으로배찬회를가형일차함고
절로의감소등바함라혹산도의등비함엇
더니후에제주목에옥기다냥시계소함
되상노와선회의편지중흥언파패설이진

신노안교의업니역절이 어눌지히와찬히
난만이동정함을제이의승복하야시니맛
당이쾌히당물을베플거시오운상후는종
해다시낮단말은이미면질하야저시츄제
스스로지어낸말이라함을며제양후의행
으로벼사오나움을서로도으니맛당이절
도형비하얌주하이다 좃지아니하시다
신등이근안지히외모는어린듯하되만
음은실노음홀하야요피로온썩삭상간
을두매그사오나움을하가지로답고스

성의 벗 양후를 의지함마오직 너를 사
소스당을 모하 부락을 일우고 그 부언을
지어 내여 명문을 광후게 하며 님한을 추
존함야구 밧그로와 주를 삼고 후검을 레
결함야안함로만함길함통함야좌우
로투르매계경이 여러가지 오주야로 주
무함매정적이 파추함야빠기름진번임
을부뒤점득함고정승을 힘베천거함기
의니르러극함지라 선대왕석셔문성
좌취라함신하표로보아도 귀역의정상

이이미일월아리도망치못홀거시오요
피로온조식의샤특훈외이의드러나고
스성의벗의흥훈게피더욱급훈즉의리
를잡은공관을원슈쳐로보아더브러맛
셔고 디형흥시논대최을비치흥야반
드시힘버막으려흥논지라이에후겸과
닌한두역적이안팎그로서로부쳐내어
비포함이더욱표밀흥야닌한의망타흥
려논게피결단훈즉지히들천거흥이더
욱급흥고샹노의왕복흥편지닌즉진장

이 다 드러나니 슬프고 통분호지라 오직
우라 성죄 권근호신년빙으로 배 종
샤의 계교를 진념호샤정소를 뒤령하라
호신명이엇지 광명정대호시판디샹
노의편지에골오되귀관이라호즉지히
의편지에도또호과관이라호고샹노의
편지에골오되풍식이라호즉지히의편
지에도또호풍패라호나나라아슈슈
호신큰게척을귀관의도라보내고등신
의충분으로난샹소를풍패라블으니아

는 지히 또 훈훈상되라 슬프다 지히 의허
다 훈죄악이 진실노 이긋여 다 소리 지 못
후리로 되어 승복훈말이 저희 단안이 되
고 찬히 장년의 서방 주히 발악 하야 소
리와 귀운이 흥퍼 후 매나 르려는 진짓 불
은바 형되기 어려오며 아오 되기 어렵다
후리로 다

덩묘에 일속 칠십여인을 내여 유수의 맛져 처
치 후 사다

산동이 곤한 배로 부터 귀척파관신이 후

로도님금의갓히 제스스사롬이업과져
아니하느니라대개그그우흔일을엇보면
그름을트며그환을막으려흠이니이제
이철십여인은곳후검닌한모든역적의
소인이라슬프다적모든역적이이무리
를익정의버려두어안호로엇보고밖그
로부처내여주장호며광혹호야배아름
다온덕을마리오고배음흥호씨를발비
미다이무리드리정탐이되야그런지라
흐릿제적은귀척이라그말외외조를밋

보게 하 기 쉬고 이 무리는 일 정소 속이라
그 형세 녀 염을 소 기 기 쉬오 너 그 안팎
로서 화 응 하야 배 상 하 룰 닥 의 혹 게 하
는 계 피 진 실 노 공 교 롬 고 흥 하 도 다 이 적
당 을 비 로 소 서 치 하 매 남 은 무 리 룰 다 제
거 하 야 궁 금 이 속 청 하 고 위 엄 이
연 하 시 니 엇 지 거 룰 지 아 니 하 오 며 전 조
음 씨 역 적 들 의 동 당 을 만 히 심 거 비 포 의
너 름 과 계 교 의 교 밀 함 을 좇 차 가 히 알 지
넋 이 제 너 르 히 조 초 싱 각 하 면 엇 지 능 연

치아니하리오

귀소의대신이빅판을거니려홍닌한파녕후
검버히기를청하다

처음의삼신후검을천극하고그어미를제
집의내찰만하기박감이라하야다의를쳐
단하기를청하고닌한의죄귀향순보내지
못하리라하야절도의옴겨안치하기를청
하야서로상소하야듯호아날마다긋치지
아니하더나맛약연을국물하매교하교하
야골오사단닌한을오히려도흔싸히누엇

논고로약연_고호_무리심상이보_고감히영
 구_호니려산부찬비_되인_년한을_고금도의
 천_구호_라이에_등신으로_더브러_호반_파남
 흥_파선_비들_있지_다상_소호_야토_되호_니등
 신_등의_삼소의_공오_되닌_한이_간사_호길_을
 반_연호_고후_경의_모조_를테_{변_호한_말아_라}권_세를_모도_잡
 아_선대_왕이_여러_히를_당섭_호샤_박판_이
 다_초황_호야_근심_호거_느닌_한은_써를_타호_흥
 역_을방_조호_흥거_를다_만이_깃거_호고_우리
 면_해동_궁에_덕을_기르_셔벽_성이_목을_기

우리 거느린한은 그 총명호심을 껍히서
러공중대척이 이의결단하여 시되 거스
뜻지 못호체호고 감히 세하치를 고타야아
라부질업단말노비용이히발쿠호야소연
히막졸나나종에후검의홍호세엄을세고
상운의홍호상셔를불너내야 슈슈광명
호신즈음을위란케호고부쳐내여요동케
호니갓가온대박호귀향이 다만속히그원
망호고호동호미임만기르고부락과동당
이뜻을일코양호호채스스로와글을일위

마조말함며세지어모이혀오직처음청소
를휘방함기만싱각함고우러러보며구버
계교함야반드시종국을업치고져함야
처음은집안의셔숫두어리고나종은조의
우의생어약연의상소의니르러극함자라
그남은홍도드리태제로잡히여밋처구분
함야감단치못함재이다닌한의우리가온
대사롭들이라슬프다저닌한이역적정결
이불러인나타나고큰형셰이막기우러시되
제후당의죽을힘을어기르도응히아러투함

즉스름고다산호가히무섭도다후검의니르
러니또호하늘아닌극적이라닌한으로터
브러흐나히로되둘이오들이로되흐나힌
즉후검으로호여곰이해식지세상의언연
이잇게호니엇지배난역을업시호고세도
나를진정호리잇가셀니두역을베혀종
샤로호여곰평안케호고난역으로무셔움
을알게호쇼셔상이좃지아니호시니이
에나르러시원임대신이빅판을거느리고
고호호야닌한과후검의열두가지죄를논

별호야 전후에 아홉번 계소하고 삼시도
별호야 계소와 차즈물베프되오히려
뜻지아니하시다

칠월경오의 낭시윤양후와윤태연을나국하
심을청하다

양후는처음에하남현의보내엇더니후에
거처부에옴기고태연은처음에거장현의
귀향보내엇더니위도의옴기고또제쥬목
에옴겨다천극하얏더니이에니르러는소
년취 계소하되양휘후범의계터결하고

쥬무흔정상이이제니르러더욱나타나시
나맛당이왕부호하여곰나국영문하여
자이다스간원이계호되태연이본디
홍활흔성으로베본디발호흔뜻을두어후
범파닌한을테결하여복심과조애되고몸
이양임을써여쥬야로후겸파닌한의집의
출몰하여차최가음비하여세상의지목이
되나이제약연의호역하는계교로베보아
토닌한을지만이붓들기흔곳태연을꼭진
이위흔이니그흥흔색을쥬무하던정상을

각히구획지아니치못홀거서니맛당이엄
국흐야등정흐여지이다다 좃지아니흐
시다

계유에
○홍닌한과형후검을
수수하다

이날의시원임대신과경지와밋삼시형

디흐야닌한과후검을버힘을청흐니 상

이꼴은샤디밧갓사름이엇지궁중의일을

알니오눈음에아직그대강을날너시되죄

악이다만이쁜이아닌즉그죄업다드름음이

아니오 또 혼외척을 위하야 앓감이 아니라
특별이 상각하노 배잇노라 제신이 더하야
곧오되어 재 배답에 의친으로 배 하교
하시녀 증공이 판속책속을 죽이 시매의친
에 구애아나 하시녀 언해엇자가 히이역
적속이기에 의심하시리잇가 상이 곧
샤던 제비 록무상하나 이막정승을 지내여
신니맛당이 상냥하야 쳐치하리라 제신이
제성하야 알외여 곧오되 비록 눈음전이
라도 그 죄악이 맛당의 죽으려든하물며

눈음후에최악이다드러나시니비금반각
안블엇지가히요디후리잇가 상이곧
샤디눈음을오놀어야비로소반포후앗는
니신만의이목의불기빈후에다시맛당이
하교후리라제신이제성후야알외되빅판
과군만이다이말아시니엇지이목에불
이반포흙이아니라잇가 상이오히려허
치아나후시더니이날밤의태신이고쳐입
시후니 상이곧샤디내리양쳐분코
저후되오직 주공이불안후실가저후후

터니오늘이민망흔뜻으로벼우러러품호
즘 조공의하표흔치도스소는혜노비록
등호나가히퍼지못홀거시오나라법은지
극히엄호나가히굽히지못홀거시라형
파덕게여러날쌍지호니엇지반드시나의
불안함을도라보아호여곰국테를손상케
호리오호시니그됨음을뵈좁고내뜻이크
게형호야시니이제맛당이처분호리라
전디라통유흔눈음에죄악을불의반포호
야시니나라법을가히굽히지못홀거시오

공논을가히막지못하려니고금도천극죄
인닌한과경원부천극죄인후검을다소소
하다삼사 계소하되후검의모소를전후
성로훈재이의그공훈극악훈죄를다하얏
느나그니외로서로응하야비포하고경영
하야기안이그공훈을발비아 성공을
위핍함이다그어미의와쥬되미라후검을
비후 명하샤법에두어시나그어미오하
려 나라형벌을도망하니청견대후검의
어미를의를쳐단하야지이다소 계소하

야 후점닌한두역적을채히현을을 현유는

비히단

라말이베플고인호야노적호야차라형호니
다 좃지야나호시다그후에철안아니코
정법아닌자논나라법대로노적을알나호
신 하파게시니삼소의우게시드되여긋
치고다만닌한의제조를산비호라명호
시다

신등이근안닌한의논의저군이업슴
이그점이오란지라귀척이국가에뜻을
어드면그욕심을방종호기쉽고형세평

박호즉 그 흥호모음을 내기 쉬오나 전천

호왕봉과 발호호낭과 조왕봉은 왕양역적

이오양과 한 네 호잇거니와 옛지닌

한곳호니 이시리오 대개 흥시디 체갓갑

고 권을 온 전이 호야 모음의 도라 보고 두

서운 배업서 쥬정스태우로 호여곰 다그

문하에나고 저호고 내치고 올니며 주고

박기를 다그 당막중에 두고 저호야 비호

세상을 구박호야 부리미본다기양이오

닌한이 그형을 니어 정승이 되여 성품이

람 흘흐고 또 무식 흘쳐라 그 덕 쳐는 그
을 저 회흐고 그 위엄과 권은 체 게 온 전코
저흐야 버골육소에 시귀홀고 뜻호아
아스려홀즉 그 응겨 님군 섬가는 바를가
히알지라 대더저학들이 의지홀야 밋고
작용홀며 외쳐으로 뼈홀즉 상정으로 버
혜야 리면 연경홀야 나 각 흘쳐 딴홀이
응당 다른 사름에 셔즈 별홀염숙홀되오
직그 탐홀논바논형세와 너육아오홀고
저홀논바논권을 천저허홀라이니 무릇

쇼인이네로부터 이제 나르히그 님군어
어질고 붉은 사고져 아니흐느니 잔실노
어질고 붉은 사면 제몸에 해로울가흐이
라 슬프다져 나한이나라 거리튼의 탁하
고 부형의 형세를의지하야 안호로노후
검의 모지그만흐당이되며 밧그로노양
후와지하서로 죽자흐느 벗이되고저는
외연히그가온대이셔 동궁을보호하
노라 말을가탁하야 일세를분츠며미연
히도라오게하야은갓일을무이대로지

회고고귀세를부려하려하느바를못할
일이업소되홀노우리 면해영에하심
이하늘이내샤볼은심이제간약하기를
보시고위영이제사오납기를제어하시
나장춧시러곰제무옴대로방주히못할
신주이거시닌한의원디새라느배라그
러나님군업슈이너지느무옴을즐연이
엄시치못하고척속의놈기를망탕되어
주쳐하야감히그안한당의법을빙자하
고죽자하느바의형세를의지하야벼공

갈고 위협하는 배아 조인신의례업슨
지라 그 참내 제 계교를 밟되 지 못하고 다
만 제 죄를 더 후즉 제 몸 에 생각되 형
세 일고 위엄을 세워 족히 밧그로 노 아 모
일이라 도 후엄 즉 되 지 죄 진고 죄 악
이 싸 혀 실 노 우 후로 는 미 들 더 히 업 는
지라 이에 의 겁하는 법 임 이 나 고 혈 오려
후고 후 세 일 위 인 야 이 공 으 로 더 버
러 마 조 선 지 카 슬 프 과 을 미 년 추 동 스 이
이 었 더 후 색 노 선 대 왕 병 한 이 날 노 더

옥침음음향샤 특별이우리 던하를명
향샤청소롤더령향게향시니이진실노
국가의큰계표오렐조의덧덧호전
례라그뻘을당향야대신을불너누은
곳의보시고모임에말숨을근절이닐으
시니정녕향고추달향샤족히배금석은
쑥고돈어를부감향시러든홀노닌한이
몸을싸혀네드라감히세가지곳향야알
으실거시아니라알노배소연이막줄나
스현대왕이향시되나의소업을장추너

손조의 배전치 못하랴 하시고 강개 하샤
기동을 두드리시고 말숨파 뜻이 엄정
하시거 의니 립 되셔 난한은 오히려한 연
이 동치아나 하쇼 조공이 편지로 베닐
으 시되 또 훈구지 거역하나 슬프다 이를
가히 참아 하랴 몬져 성의에 거신 바 돌
안즉 노상을 거느리고즈레 물너나와 배
순문하시논 길 흘막 줄으고 밋 성명
이 의미나리 신즉 좌초를 건너가 압호로
막아 버뒤의 사름을 뜻지 못하게 하고 승

지를막졸나 전다를쓰지말나흐며스
관을구라쳐 연설을괴루지못하게
나그구만이다른뜻을품고그방조히
홍송씨를부러이이익죽기에용납지
못하고상운과약연아태례로서로나
우익을제거하논계교와단척을연
복을외갈수록점점김프디슬프나
그위티흐도다대개령정호라
신명어곳우리소빅년의종
샤안위의관지호배오팔방
산민의즐거온경이호호배로
더저희부리

의 화복과 성패도 후이에 판단하느니라
 그림으로 모든 흥적의 힘을 후가치로 후
 야 죽기를 무릅쓰고 항거하야 버텨 희하
 고 위동하기를 도모함이 나르지아 날배
 업스나 그시러 품은 늘 날을 두미 잇제 하
 들이 아니리오 슬프다 텃신 축년의 위경
 모병환이 계실시사 대신이 현대왕된
 리 후심을 청하오니 썩의 태구와 봉휘무
 라 드리서로 너브러 나라 병환을 귀이
 고 들드리로 원슈로 너기니 이 귀휘의 무

리 배 천 고 의 흥 역 이 되 는 배 라 비 록 님 한
의 흥 흥 함 으 르 도 상 시 의 또 흥 흥 엇 지 이 런 의
리 를 모 로 리 오 마 는 오 직 몸 소 그 사 오 나
음 을 범 흥 야 서 로 법 을 전 트 시 흥 썬 아 니
라 그 온 양 흥 고 비 포 흥 이 또 흥 이 구 휘 의
업 슨 배 라 슬 프 다 동 분 흥 도 다 처 음 은 벼
솔 의 득 실 을 근 심 흥 다 가 중 간 온 스 스 로
의 심 흥 며 스 스 로 겁 내 고 나 송 은 나 라
흥 원 슈 로 보 고 부 덕 맛 셔 랴 흥 야 즉 역 과
대 죄 의 나 른 후 의 그 침 이 그 엇 지 말 미 암

아온배업스리오○후검은본디히곡의
미천한거시라이희적의화완이양주를
삼으니성품이표할하고참간지죄이셔
그어미로더브러 선대왕씨사랑후배
된지라그러나 선대왕이만참내사랑
후심으로써후검을청유후벼슬을빌나
지아니시고또후후검을경계하야망탕
되이사름을사과지말나후시되후검이
오히려그어미형세를방자하야밧그로
권세를꼭니처음에흥시오래나라정수

를오로지호야씨조정스태위제게붓조
츠며아니붓죈니니를임의로출척호니
조정스태우드리이연히도라가흥시의
문하에출입자아니호고벼슬호는사람
이업더니일조에후검의형체성호야비
루흥시라도또호두려위호는줄을보고
언호야흥시섬기던바로벼후검을섬겨
감히그스이에경득을누지못호니후검
이조정스태위의이람을보되오히려
세상에청호는호니니저를허치아니호가

님녀호야잇다감상소호여시절말을호
야기림을도모호고또호만음의호시를
새려닐으되호시를쳐야가히버인심을
깃그리라호야이에드러내여호시를비
척호나이에호시의게붓조치던사름도
또호후검을깃히비척고져아니호되소
류의그정척아논재더욱위우호니후검
이소류드러종시저를허치아니호을알
고드디여다시호시의게견일호야더욱
위엄파복을넌니베프러버알세를농낙

흐니 이세에 대신이 하로 분터 무릇 인물
을 진퇴흐 매부디 몬져 후검의 뜻의 가부
를 못고흐니 사름들이 다 취취흐야 감히
흐말을 내지 못흐는 지라 후검의 뜻이 더
욱 표만흐야 드디여 닐으되 이세상의 다
시 저와 서로 듯호리 업다 흐되 아지 못흐
는 바는 오직 동궁이 저를 엿지 보시며
또 흐 재평성 본말과 다 못지 만이 작용흐
는 배 흘노 동궁이 다 아르시느 줄을 두
려 위흐야 그 배 달내여 흐여 곰 좃지 아네

치못하_고 하_고 험박하_야 하_여 음감히 쥬
곰도 어그르_치 못하_고 배그술이
빅가지로 하_도 그계피_맛 참내 발외지 못
하_느드_디여_그어미와 맞_난한_계적_{으로}
더 브러니외로 형세를 합_하야_역적_의선
이론지라 처음은 재_수인을 버러 동_정
을 슬피고 거_죽말을 지어내_어 텅문을 광
후게 하_고 나_종의_눈우익을 전제 하_고 고
를 현연이 시험하_고 대_척을 번복하_는는
외로_만이 쥬_장함이 극_진치아니 미_업

서비록 언소와 네 수즈음의 니르러 도도
훈다 시인신으로 쥘 처치 아니 하니 이네
로 부터 업는 흥역이라 그 죄범을 의논하
면 비록 저재의 비리는 법을 배퍼도 족히
배그조를 당치 못할 거시로되 성죄관
인하 샤를이 수 하신 기에 그치 너 일
국신인의 분이 엿지 다 함이 이 시리오 오
회라 을 미추 동을 당 훈야 현태왕병환
이 날 노 더 하 시 고 디 령 훈 의 는 이 주 시
결 단 치 못 하 고 훈 노 후 겸 의 모 저 쥘로

선대왕악 너에 출입하니 나라 사람의
심흔논지라 이새를당호야만일 선대
왕의일월을지 붉으심과 풍정깃호결단
이아니시런들 나라히그엇더호리오
국운의팅장흥이턴지로더브러흔가지
로유구흙을여과가히베보올지니비록
후검의천빅무리의시나그하늘에엇지
호리오

신묘에심상운이복쥬호다

상운이처음에흑산도찬비호였더니후에

제쥬목에 옴기니 더간이년호, 연나국을청
호니이에니르러 운종호식다상운드려
못조오시더네역일의조손과인륜을어즈
러이논무리로버비류의게슬부호여상전
긋치보고아비긋치섬겨일야의배경영호
고비포호는배지극히간사호고지극히요
피로와홍국호고화가호는일이아닌거시
업슨지라전년겨올에홍호상제조못급셔
와긋호야정신의모힌배전혀도당을우단
호야홍역을시험코져호는색와우익을전

제호야 위핍호기를 받되 고저호는 계교의
이셔 배익창의역적환판_{박선축년역}환을세
고역적태구를 돕는 여습을 나온시라고써
에 등신의 상쇠진실노나라홀위호충적으
로나신즉공판의침묵호며침묵지아님과
삼가며삼가지아니미그소이에무어시간
에호판뒤이에감히은실슈란말노버스연
히글에배조곰도모라보아새리미업서배
공판을망타호고이극을요동호는계교를
호니온실슈는파연무숨일을닐너시며엇

던사름이 고르쳐시겻는 노셜스전훈바궁
판이 스스로 상소하 여도 선조에 분노하
기를 위하고 적산의탁난훈을 통분이 너기
머나 이엇지 청년으로 도라보 버리 오그 세
에 국가의 상쇠이 의뵈천 것파 하야 궁관
으로 하 여곰 초를 버니 궁관이 비극나 가닐
너신들 엇지 온실 슈되 라 오비 상전 쳐로 보
고 아 비 못치 섬기논 재 누구며 온실 슈란 말
은 어 누 곳의 드러는 노 상운어 공소 하되 신
이 상시에 후겸 화홍낙 임집 밧귀는 왕니 훈

곳이 업습고 온실슈일은 흥낙임의 집의셔
말슴함, 옛표셔 연에 유작함, 년말은 텡부
스김상복의게 드렸는 이 님 못조오시던네
드른배 무슴말이 표셔 연의 설화를 드호한
드시 다른곳으로 좃차 드른디 이시리너라
직고함, 라공스함, 되척벗기시논 미셰호일
도 드호함, 드렸는 이 님 못조오시던네, 어는 곳
에셔 드렸논다, 공스함, 되흥낙임의게 드렸
는 이 님 못조오시던, 흥낙임, 밧키 다른이셔
로 친함, 나 업스면너, 고함, 함, 얼의 무리엇지

저러트시발시흥리오네엇지후검을인연
흥야필션을드모흥여국가에들너지아니
흥다국가를향흥야귀귀피피흥말이다너
희무리에셔지어번배너장지흥과김종슈
의일을운운흥말이엇지또흥너희도당의
말이아닌가네역적되는단안은곳은실슈
란말이니네응당드른곳이이실거시너다
직고흥라공소흥되셔명선상소후에궁관
이흥신의게전흥엇단목절을파연후검의
게듯조오니배흥되딩민시가셔명선드려

닐넛다흐더이다못조오시디네후검의집
의가셔무슴말을드러트드다네다만후검만
알고다룬사름은아저못흐느나공스흐되
후검의집의운양후와운태연이왕니흐읍
더이다못조오시디령정이엇터흐큰의리
완데후검을위흐야이런상셔를흐야출하
리국가의죄엇기를돌게너기니네게응당
큰나익이잇느고로상소를홀이니공판이
비록동신의게혹말을천흐야시나네엇지
참이닐으되우흐로서시켜상소흐얏다흐

는 다 공소 하 되 궁 판이 만일 좃 더 면 도 흘 거
시 매 삼 가 지 못 하 허 물 을 신 이 파 연 말 하 엇
느 이 다 못 조 오 시 더 동 신 의 상 소 를 너 희 무
리 버 엇 더 타 하 느 고 공 소 하 되 후 겸 이 곧 오
되 이 상 쇠 반 드 시 사 립 을 죽 이 고 저 하 야 흠
이 니 사 립 이 다 이 상 소 로 말 미 암 아 죽 게 하
엿 다 하 거 늘 신 이 더 답 하 야 곧 오 되 호 대 신
은 아 한 가 히 죽 으 려 이 와 텅 감 이 야 엇 지 곳
하 야 죽 으 라 하 오 니 후 겸 이 곧 오 되 셔 명 선
이 날 을 소 기 고 상 소 하 니 엇 지 흥 하 지 아 니

호리오나는 흥가를 친호과로 반나시 죽노
라 호더이다 못조오시 더 후검과 슈작 호던
말을 적고 호라 공소 호되 신이 상소 호 후에
호별을 후검의 게보내니 후검이 곧 오 되 짐
소는 배 호 되 충신이로 라 호나져 사름 들은
반드 시 배 호 되 쇼인의 요행이라 호리 라 호
더이다 흥낙임과 후검으로 더 브러 쇼 슈작
호 배 이 시 니 만 일 흥낙임의 게 못 조 온 즉 가
히 알 니 이 다 못 조 오 시 더 후검의 위 필 호 던
말을 일 일 히 적고 호라 공소 호 되 흥낙임의

집의가온즉윤양휘좌상에잇는지라낙임
이골오되대신의말이무정의로났는디셔
명선이용의로도라보내니반드시사람을
죽이려호고그리호엿다하니윤양휘골오
되셔명선의상소후에대궐일을실노알
길히업다호더이다못즈으시되네도당이
어이궁중의일을모로판대모로노라호고
노그색의순래잠간엄호면날을미행호다
호고호로호놈을사학호야어든즉이후검
의사름인고로다만위로지면만베틀더니고

후에 절패부도호말노배진셔와언문으로
니명셔를호야기만이궁중에터지고또궁
관을위위호야부언이니르지아닌배업고
또닐이되호반의총모를싸여앗는다호야
서로탕설호야배의관을삼아상차히전설
호기에포청으로잡아다스렸더니그후에
네닐은바온실슈란말이므츨내나시니그
말이너희도당으로셔난줄을가히알거시
오또일셰다너희무리의게붓쫓는다홀노
궁관이붓쫓지아닛는고로반드시제거코

저흐니의엇지위필흐려논계피아니냐네
비루상소를호지안녀도응당아지못호니
업거든호를며이상소를호재냐네상쇠전
혀요형을비라죽을가온대이미그싱도를
헤아려호여신즉그죽지아니키를헤아리
미응당그속의곡절이이실이니종실호야
직고호라공소호되파연후검의시기를인
연호야상소를호였소오니일노버승복호
니이다못조오신디네후검으로더브러슈
작호디말과온실슈의소이연을종실직고

치아닐소냐공소호되신의모음의배호되
셔연에설화를맛당이사름특러닐은지
아닐거시라호는이다못조오시더셔연에
설화노무어슬니룬배보공소호되던해
닌한은배불충호다호고노호와상소를
호고져호시논뜻을궁판이나가전함을닐
음이니이다못조오시더벼어디카드러는
다공소호되홍낙임의게듯습고안내제보
신을와보입고또한우호로셔노호와호
신단말을호터이다상운과대제면질고호

상운이 곧 오디 소죄노 호와 호신 단말은
국동으로 부터 나 시되 네 호닐 으지 아 니
하 더냐 며 제 곧 오 디 네 엇지 사 롬 을 무 함 호
는 다 상운이 곧 오 디 네 엇지 오 래 면 주 연 이
알 니 라 말 들 아 니 호 다 대 제 곧 오 디 너 파 연
이 알 을 호 앓 노 라 상운 드 러 못 주 오 시 디 너
희 무 리 버 호 되 동 신 의 상 소 를 우 호 로 셔 식
여 호 앓 다 호 고 이 렷 특 시 전 호 야 닐 벗 는 노
상운 이 공 소 호 되 신 이 듯 주 오 니 던 해 노
호 와 호 시 는 고 로 공 판 이 나 가 셔 명 선 드 러

볼너 흥여곰 상소를 흥얏다 흥더이 과 못조
 오시디 형정을 불만이 덕임도 오히려 여씨
 라 네 상체 그 뜻이 상셔에 굿칠 분이나 네 역
 적 되었음이다 솟가지 죄이 사니 흥나은 상셔
 가 온대 온실 슈일이 오 들은 출하리 저 궁 씨
 죄롤 어 들지 언정 감히 흥도의 식이 논 거슬
 어 그릇지 못 흥논 배 전 혀 요 흥 흥음으로
 셔 나 이 오 세 은 몬 저 상셔 흥고 후에 번복 흥
 려 논 계 피 오 저스실 권슈에이 서나 흥되부
 장 관 을 제 거 흥고 버 거 들 부
 흥을 도 모 흥 네은 역 적 을 부 동 흥야 기 기 기
 논 계 피 라

피호거죽말을지어내미오다솟슨설스공
판이말을전호야동신이상소호다호야도
이거시종샤에막동호대겐숙엇지감히
소장에을녀배공관을장해호고국본을위
동호계교를호리오이제이다솟쇼목이네
단안이되나일일히축쇼호야지만호라공
쇼호되다솟쇼목중에두쇼목은알고세쇼
목은즈셔히아지못호니이다못주오시되
네아지못호나업스의셋재쇼목의상셔호
후도모호던일을네아는다공쇼호되파연

아오너 곳번복홀일이로소이다 못조오시
디네이 미번복홀랴는일을아노라홀고납
초홀즉그다른조건을결단코아시못홀니
업소니다사적이고홀라공소홀되신이과연
아늑이다 못조오시디네이의다섯조목으
로배승복홀니 다만온실슈란말뿐이아니
라대양세번복홀랴는계교로나시니이거
사역적이아니나공소홀된온실슈로배강
판을침척홀이뜻이범 상의이시디그대
상셔는과연후점의시간배라대개후점이

서명션을 의위호야배호되서명션이공관
의말을듯고상소호엇다호야이에신으로
호여곰서명션을논박호되능히서명션을
바로논척지아니호고온실슈로배공관을
이척호야배우익을제거호를호음이이
과연후검의고르친배너이담범상부도
로써결안호니정형호고적산여법호다○
안대제는방축향리호엇더너헌부게소
호야고쳐국문함을청호니쫓지아니호
시다

신등이 근안상운은 혼련성요일이라 텨
샤흥고표특흥야흥지못홀배업논지라
역적익창의손지제한아비된즉그세루
를혐의흥야시상의게성축흥야한아비
를밧고니이논인륜의대변이오만세의
역지라이후로붓터제또흥스스르세상
에용납지못홀줄을알고드더여몸을후
겸파닌한의집의의탁흥야그장두를밧
고그조애되어하논을기르치며싸홀그
어싸흥논배화엿일이오압흥로탕설흥

고 뒤흐로 화응하야 지어 버스배거 좃말
이라 쥬야로 귀를 거우리고 오직 요흥을
브라 더니 밋 디형하 신대 척이 이의 일
우매 더 희하던 흥되 발되지 못하스상은
의 흥호상세 드더 여난 지라 슬프고 통분
하다 그 계교지극히 참독하고 그 말승인
주는 영하되 마장그 경신과 귀팔이 전혀
은 실슈삼주에 이셔 배궁판을 장해하고
저궁을 위핍고 저흥이 오직이 말이 오
버 천총을 현혹하고 대척을 번복고저

흥이소흥이말이라비되더욱표밀하고
채배지극히공교하여필경의흥두와역
절이다소가지결안의낭자하나슬프다
남귀오로논진남이름마르치는재그위
리오후검파닌한의역절이상운으로써
더욱낫타나도다

십이월비하의은양후를국은하시니승판경
폐하단

디한이년하야나국을청하터니이에너
러은종하시다양후드러못조오시디네

후검파닌한을테결ㅎ,야세도틀탁난ㅎ,는
죄논오히려적은일이라작년동에디형ㅎ
라신명이이에 종샤에대게어놀상소ㅎ
셔명션을네사롬을촉여논박고져ㅎ야주
어니에소츠를더코동셔로도랑ㅎ,다가그
게피발되지못ㅎ,즉기만이후검으로더비
러ㅎ,가지로써ㅎ,야상운을어더내어배번
복ㅎ,계교를ㅎ,함이진실노턴디간의ㅎ,요피
로온연적이라형,정ㅎ,할써의비후검으로더
비리상디ㅎ,야배ㅎ,되형,정은이아직시험

흥신일이니 담회적이나으신즉장것이
 리이리흥리라흥야이두조로정_{이두조로}
 번일세로공동흥니후겸이이적_{이말노}
 써드러와알와고네또곧오되츄화흥후에
 상회평복흥시면니병외또흥엇지죽을
 날어업소리오흥야네편지가은대이러흥
 말이잇는고로또흥이미즈셔히드렛너니
 세가지죄안을지만흥라양회공소흥도상
 시에닌한후겸의무리척신이된고로그역
 적인줄을아지못흥고저희소긴배되어배

너지경의너로오나맛당이지만되이세
가지죄안으로버지만호온즉스스로대역
부도의도라가오니엇지어렵지아나리잇
가뭇조오시덕네세가지큰죄이의다후겸
의입으로나고출간담후지설은곳후겸
의공전호야닐은말이오네상운파슈작호
던홍언은상운의초스에나추안의실너여
시나네감히지만을아니홀다공수호되상
운으르더브리과연홍낙임의집의셔서로
만나슈작호배잇더니하피이러호시너

나이다 못조오시디네엇지감히이런말노
배만한호야납초호리오공소호되신이이
의난한과후검의조아되논교로그뜻을호
몰디치좃차파연터희호였는이다 못조오
시디그더희코져호는심장을이의납초호
야시니그터희호던극절을스속히직교호
라공소호되서명선의상소후에후검의무
리더욱격호야갑히령정대계를슬희여
호야반드시터희코져호는교로신도또호
호가지로격호야강히터희홀게교를내교

서명선이 상시에 신으로 배넌 한 귀 조애라
흐야 위위흐는 고로 신도 호위위흐읍고
그 쓰상소의 난한으로 배역적이라흐온고
로 신이 배흐되너 무파타흐야점점식겨흐
야터희홀미움을 두엇난이다 못조오시더
네 무슴심상으로 배형정을 파타흐는라공
소흐되고 그세에서 명선의 상쇠니 해로 낫다
흐읍고 파연공쳐흐엇난이다 못조오시더
주머니가 온디소 초너흔일을 종실흐야적
고흐라공소흐되난한의 역적인 줄을 아지

못하고서 명선이 소더로 모든 양을 보코
오의분호배이서 친구중에닐넛스니이다
못조오시디네나라편사롬을모해코저
야그근본업손말을지어내니이런정절은
세가지근죄에버겨논으히려적은일인고
로아직반문치아니흐스니세가지문목을
셀니직고흐라공소흐되양운을지주호일
과밋부도흐말지어낸일을맞당이지만
오라이다므릇형문소초의물고흐다대소
간감보순이상소흐야폴오되모든역적의

공경이 전허양후의 게잇더니 불행이 즈레
죽어근뵈을 구획히 기어려온지라 양후비
류죽어도 또 훈양후이 시니 못태연이라 태
연을 국문훈즉양후의 다로치 못흐정절을
가히어드리나 청전대나 국후야 지이다
죽지야니 하시다

신등이 근안양후는 언디 소이의 식성요
특훈물이라 간사훈곰기다 만추세
의 쓸니이고 약간죄전허니 과히
의 비쓰는지라 청판파의 직을 진실노가

도마를진대비루문귀의어과노일이라
도소헌경을하야도라보지아니니선
대왕이일월및치복으심으로베그상셔
롭지아닌인물인줄아르시고천후관직
에여러번근점하시니이에급급히안
호로그우호길을통할계포를하야후겸
외시기를즈테곳치하고닌한섭기기를
노복및치하야주야로출몰하야단예를
엇보기어렵고엇개를기우리고귀를다
혀귀판이파츄하야그버밀물하고슈무

하느배다 나라희흥하고 집의해로운
일이아난거시업소되그런디간의고
장용납지못흔바로닐을진대후검파닌
한이 저공을원슈로보아우익을제거
코져하야진충흥년궁관을감심하려흔
즉양휘모뉘뉘여집의셔만금이라도내
여부디장살코져하고후검파닌한이
더리를불만히너겨빅게로더희하야상
소흔등신을감심하려흔즉양휘그모뉘
되여주머니에호상소를너허동셔로서

몸을축이다가밋고 성단이혁여동사
간약한계교를발되지못하여정소론

다령한신대척이일은즉후검의지휘를
바다상은을모두하여감히흥셔를나와
비번복한계교를하고총내이에참아
하지못할알노비소연히탕설하여일세
를공동하니무릇이런섬홀은정적이어
누거시후검과닌한의장귀_{장귀는범의}
사_{으로}범을인도_{하여}아니리오비부벼슬
을일일을가근심_하야아닌노로직업스

은공성의말씀이오아비와님군을찬시
흠이다득실은근심함으로말며암음은
쥬지닐으시니양후의원흠은뜻조차처
음인즉일신득실은근삼함기로나불뵈
치언덕의버터가고적은물이하늘의다
흠고함야필경의국가의회란어말함기
어려온지경의니르나성현의말씀이엇
지소가심이어시리오오직그완인함야
경폐함거로방형을바로계못함니또함
통분치아니라○태연은도천흠무부라

표현의 성품으로 베풀어 미혹한 술에 넘어
후겸파닌한의게 친압히 붓조차복삼이
되어 신즉무릇 후겸파닌한의 후우리가
온대 무리들아 다 그스당이로되 양후의
게는 바로 몸이 다르되 심장은 한가지니
그세사름이 날이 되 문관윤가 호반윤개
라 하더라 미양 후겸파닌한 파양 휘머리
를 모화일을 의논할시 태연이 일즉그가
온대 잇지아 날적이 업스니 이세에 태연
이 보야 호로어 영근 병을 맛닫는지라 미

양밤이면 나귀로 토고 추송을 업시 향교

척니와 금년 척니 금년은 년한 후 검신 광유외 무리를 날음이라

의 집으로 출몰 향야 종적 이음 비향야 사

롭이 능히 추냥치 못향즉 후검과닌한의

무리 흥흥외와기만향계교를 태연이 실

노고고동이 되고 향별파상간 제적이 그

후검과닌한의 게그 색오고 중미함이 평

히노구의 흥음을 기르치며 노에 명팅을

전향드시 향이다 태연의 향이라 향몰며

향임임임 나라 안위에 흥향배여 보일적

의형췌성홀췌를당호야태연이이전당
슈를업시호고제몸소더호고욕심이오
히려치지못호야원용되기를도모호야
그경영호고비포호던자최다 선대왕
하교의드러나시니슬프다네로부터난
역이나매일죽병권을잡은양슈를테결
호야버일을도모치아니미업스니슬프
다또호호호도다

금 상원년 평유 수월갑진에 명호사홍계능

을대명현에천극호신다

계능이 음홀ㅎ, 고흥특ㅎ, 야원악과 거피되
여시되 특별이 밧그로 유자의 일흥을 가탁
호고로 오리턴토를 도망ㅎ, 니국인이 분노
호더니 이에 니르러 대스간니의익인 계
소호야코인되 쥬역에 놀으되 니국승가에
소언을 쓰지 말나ㅎ, 니소인위청티훈즈코
지아니ㅎ, 야간참훈자도 이시며 흥홀훈자
도잇나, 니간참ㅎ, 니논드러나 기쉬위크해
생르되 적고 흥홀ㅎ, 니논축냥치어러위크
해더디되커, 모참내사름의가국을 해호후

에마논지라이지 일신호느웨르당호야
조정이청명호니귀역의무리맛당이감히
일월호호신아리발뵈치못할거시로디
이에홍호호무리를모도와간사호말을쑤미
미적휴_{적휴는운회라}호호며샤론을듀장호야군
정을의호호미지호호호니이시니곳전십
의호호능이이라게능이본디맛친병이이
셔스류의빈린비되었더니세월이떡오리
미친호지상이힘을내여호연이초선_{산림}
라말이이되니일노말만암아남활호호일으시

점점길고 광역호증 이 더욱 김허량 피호고
 방조호야호지야 낮는 배업 석강양호야 참
 아 못호형살을호야 햇가림을도적호고 방
 조히히 패호의 논을호야 스스로 준의잇노
 라호너져 즘쉬 일종 불령호 무리 들이 스스
 로 스류에 용납지 못호 줄을알고 이에 능
 을 넘퍼와 주를삼으 나 제호호나 호소호호들
 며 거러안자 스스로 날오되 날안호 나 업다
 호야 이에 대복의 의논으로 호 불과 상관을
 쇠오고 슈송

인세호되 메더로 무호야
 배호된 일 후에 장초 호도세

조를 추송하시 다 일 음 이 라 향을 말노 제류를 공동향야

일후국동

홍사들이 국동에
이 심을 날 음 이 라

시절에 계능은

우의정아 되고 김상익은 학남

홍도의 일인 것
나 배니 후경

의한 날 음 이 평우 이 되고 상간은 네 제후이 된

다 향논말이 세상에 현전하고 궁중의류

입향야 귀잇느 니 다 뜻고 사름이 모로리 업

스니 면해소 혼일즉 저 썩탁난 향논 무리

의게 아라겨 오실지라 을 미년거을 령정

향신후로 부터 후검의 역결이 터욱 낫타나

되고 전과 세는 전히 나 맘의 전권을 잡은 새

의내도히터흐즉나담은이게능의스스사
롭이라지휘하고롱낙하야오직제무음대
로하고난한의홍게또흔령정호신처음
에넣타나되난한의상해벼밧고방조흔배
또흔게능이잇는연피라형세논고만아후
검을밧고화복은서로던한과관섭하니그
쥬무호는정상이니러나춤추기에너르러
더욱곰초기어려온자라또흔그사오나은
성품을하늘이내고추흔벼르스날노조라
므릇조호호는연비와제게부츠지아닛는

사름이이제면풀을생내며우지저문득욕
을더으지아니이업손지라보는재능을홀
귀고듯는재집히근심흥더니이제모든역
적을이의서치흥어시되서치못호자는
와글이오큰의리의불아시되싸이지못
호자는근본이라그나라시비를북히고사
름의모임을형흥도도리에결단코그만흥
지못호리니청컨대위선초선에발거흥고
스판의삭거흥야지이다 상이윤종흥시
고또 하교흥야글으샤디내동항에이시

썩에게능이로버흥의바의게근함을보미
만흔지라다만흥의논으로버협지흥선
이아니라므릇위흥야츠히고천거흥
재또흥말내며또흥공갈흥야되릉흥고조
절흥야흥어곰조곰도제삿애어거지못흥
게흥야비록공노의게네스반스흥은근히
라호우열이혹게능의게밋지못흥연후겸
과닌환의무리문득레쥬뜻나라즉성이
오되단술을베
이지안되흥니왕의
게안을뵈다흥니라뜻를베프쳐아택흥단말
노버공갈흥고협박흥야더해부디게능

의게 죄를 엮지 말나흐는 말에 니르러 극한
지라 일홈이 초선훈사름이니 만일 적은 죄
와 열은 허물인즉 악호호야듯 덩기 가호거
니와 충역판두의 오히려 가하 초선이라호
야 죄를 용디호랴아 배시비로 소이제야
나미가히게 능의 괴세나라에 서더호음을알
지라이 우고냥시합 게호야 절도에 천극
호기를 청호나 상이 곧으샤 디게능의 죄
악이 엮지 다만 대복말과 텅정의 논뿐이며
또 엮지 다만 화를 즐기느 뜻파 니러 나춤추

는색썬이리오그죄상은노려흐배다만초
초홀썬아나라홀블며전후연중애내계
능의협지홀바와되롱호배되던뜻으로루
루히하교홀야선즉집법호싸히진실노
맛당이이러트시그범연이위논치못홀거
시니조못극히개연호지라그러나청호는
를인즉가롤이나의게호라

은신등이근안개능이국동에집호야사니
닌한의형태는갓가온이웃으로베고장
은천후호고니담은동셔로배압블호고지

하와 상간은 갖가 음결리로 버친 말 호지
라 계 능이 점어 선분너 체 홀한 형 실과 피
격 호의 논을 도 하호 아 헛 일 품을 도 척 호
고 초 선을 의 칼의 통 청 호 아 조 정에 스 태
우와 권 귀의 주 테 날 의 쓰 호 조 차 노 논 지
라 세에 흥 시 권 병을 오로 지 호 아 스 류로
더 브 리 원 슈와 적 국이 되 도 홀 노 계 능이
그 즐 거 그 쓰 임이 되 논 고 로 이 에 계 능을
몹 혀 종 류를 삼 으 나 계 능이 두 되 여 간 약
호 날을 부 회 호 고 간 스 호 의 논을 탕 설 호

야장니 추수호말을만드라내어배제유
를공동하고호년상간의대부말을인말
호야셔 상하를협지호는적라전우빈
각호게희긋호니호퍼호위호의호
을현현이알외고니담은크게범죽호
을힘배천거호며 조고만소송이우연이
제게밋지못호죽후경과난한의무리은
투레쥬란말을인증호야배공갈호야크
방자호고조절함이잇지아닐배업스니
이엔게능의성세날노더욱장행호고도

당이 날 노 더욱 북 조차은 연이 포도의 연
쉬 못 슬픈 들이 안 히 드 년 말 이 라 된 지 라 흥도 들이 미

양 말 흥 매 반 단 시 우리 산 림 이 라 일 쫓 고
또 늘 으 되 국 동 시 절 의 계 능 이 우 의 정 이
되 고 김 상 익 이 학 남 이 되 고 상 간 이 대 제
후 이 된 다 하 야 두 로 현 파 흥 고 파 장 흥 야
하 여 곰 궁 중 석 지 흥 녀 드 려 보 내 고 밋
니 담 이 전 판 이 되 매 계 능 이 새 를 타 귀 운
을 더 하 야 임 의 로 브 러 후 범 으 로 더 브 러
성 완 이 더 옥 포 일 흥 포 테 별 흥 이 더 옥 구

더 신묘임진년 스이에 스뤄다 물너 지고
 역적의 형세 다 시 성흔 즉 무임이 득득하
 고 뜻지만 족하야 작약히 너러 춤추너 사
 롱의 어지지 못함이엇지 이에 나르러
 노므릇 흥도의 흥흔의 논을 전슈하야 배
 동궁을 박해함은 계교를하야 부언을슈
 장하야 배일세론의란하논 술을하논 새
 다 계봉의 일흥을의 지하야 자동하야 고 계
 영의 입을 비러 광후게하야 조롱하야 말
 이 날노나 오고 위핍하야 배방츠어 흥하

나 이 생명 이 배 흉 호 의 게 끈 함 을 바 든
배 그 만 함 을 이 기 지 못 하 시 고 계 능 의 정
상 이 일 월 아 리 도 망 치 못 훈 배 라 밋 상
간 의 우 식 나 매 상 간 이 말 마 다 문 득 계 능
을 들 어 기 니 상 이 곧 샹 사 뒤 이 저 쇄 흥
도 들 이 생 명 으 로 버 날 노 궁 중 의 들 니
던 흥 계 능 이 나 흥 시 니 일 노 알 미 암 아 세
상 사 름 이 비 로 소 계 능 의 정 척 이 흥 비 흥
을 아 니 정 토 흥 노 의 논 이 또 흥 듯 도 다 슬
프 다 네 로 부터 흥 역 의 무 리 사 름 의 가 국

日知錄卷之二

十一

에 화를 기치논 재헛일흥잇는 사름을 붓
 조차 의리를 우미며 시령을 의 후게 이닛
 나, 니 업논 지라 그림으로 이 첨_{내려 첨이}
 흥논을 량과 흥매인 흥_이 흥_인 흥_을 이_에 쥬
 존 흥고 견과 남이 찬 역_{남은 흥견이} 역_{은 흥견이} 역_을
 썩 흥매 적 흥_은 흥_이 흥_에 의 탁 흥고 비록 덕 소
 와 저 한의 무려의 나 르러 도 썩 흥_은 흥_이 흥_을 지 흥_은
 로 배와 듀를 삼으 나 대개 그 헛일 흥_은 흥_이 흥_을 이_속
 히 배간 악을 숨기 고 위엄과 형세 속히 배
 세 상을 부리 논 연 피라 이제 모든 역적의

계등을의지하야와글을삼음이평하이
침의인홍을추존하며연파남의정후를
의탁함으로더브러심장이훈가치로도
그파추호말을주장하고불텡호무리를
조용하야우호로핍박하고아리로공
갈하야조공도커탄함의업슴은아쏘인
홍파적후의무리의업는배나슬프고통
본하이다이에된간의말이크게발하고
나라결단이혁연하야일국시비크게
되고사림의인륜이능히바르니이엇지

세도의 다함함이 아니라 오직 야호로게
능이세상을속이 고일흥을도적흥을세스
스로버호되니를점득함기에공교하고
권을부리기의잘함노라호더니밋그죄
악이관영함야신인일다분함매귀역의
자최스스로드러나고경예의버히물도
망치어러온즉재평일에과판을허비함
야쓰던일이다만속히스스로몸을장해
함는게제되니또함가히버세상의경계
되염스구함도다

명의록발

네공지춘추를지으시매난적이두려워하
니이씨의왕실이미약하야상벌이형치못하
는지라고럼으로공제늦나라스리에의탁하
샤벼대의를불히시고큰범을세오시나대개
마지못함이라생각건대우리국개성인
이서로니으샤거의소복년이라시운이
평피함이니셔난역이소이에이러나
되이의다즉시쥬토하야벼하늘위
엄을막츠즉맛당이클을기다리
미업슬뜻하되세변이무궁하야인

심이의 호호 기위위 거실과 세족의 국가를
원슈호고 군부를 무필호는 재왕왕이 문견
과의논에 그릇호기로 바로서 나종의역적되
기에 나론 후에 마니 슬프다 알미암음이 점이
이시매 분변호기를 가히 버일즉이 아니치 못
홀 거시 오와 오함이 겁호매 날으기를 가히 불
게 아니치 못홀 거시 라이에 클을 시러 품짓지
아니치 못호야 희미호재 버외듯고 완악호재
버바로 나이 감난 록파천의 쇼감의 버저은 배
라 오회라 우리 연해성신의 주질노 버총적

의 지위에 겨오셔 불행하야 변이척 너의 내려
나고 회궁위에 붓쳐 그 배너외로 온양하야
쥬장하고 환후하배지 극히 날으기 어려움이
잇는지라 흘노우리 선대왕이련부디 저하
시고 불으심이 일월갓하샤 비록 권근하사
고침질하사 눈날에도 지조하신 조익악지
극하신 덕이 틈을 가히 틀길히 업고 싯하우리
왕대비던 하성덕이 아롬다음을 니으신디
나타나고 회건도를 승찬하사 매협함하샤
안흐로 흥모를 막저르시며 우흐로 대척을

도으시고 아래로는 두궁되소싱을내여노
코 성궁을도와화란의밍얼을나타나지못
훈디석고워히훈커들이브야흐로베푸는디
두로지버므츨내 국가를태산파반석갓치
평안훈디잇게하고모든역적이태려로췌류
훈지라 왕법이능히행하고국시크게명하
야시되오직척니의권셰등하야오리일세로
하여곰습복하게하고궁금의소정이며밀
하야와인외타알배아닌즉일세다습복하
므음으로배외인의아지못하느니일을당하야

그엇자버일쇼의역순향비의분별을호연이
알니오우리 년해명향샤찬집형을베프샤
일거를 리오심과신등이 명을밧즈와
편마향야슈야로감히쇼곰도예을니못향음
이다장춧버년하의대의를북하고일세의이
목을알게함이니그분변을일즉이향고닐음
을과히향야버희미향니를썩듯게향고완악
향 를바로게함이감난록파천의쇼감지를
색의셔터옥급함이이셔바로츄츄로더브러
길히다르되귀츄는헌가지라슬프다이글이

나매장춧져싸에권세를두려워함며은혜를
싱각함며샤론에선혹함며침닉함야도로혀
지못함고지의함야결단치못함던재쇼경이
눈을쓰고밤에초분을어듬깃함야망임을고
치고싱각을도로혀죄예멀니함고어진덕로
나아가일세를다 황극지치에틀게훈주형
벌을비록쓰지아니함야도가함니이 성상
이명함샤이클을편집함사논뜻이라우리
국개괴현영명함샤오만소년의아름다음이
장춧이에이시리로다

상지원변하소월경주에가선태우강화부류
슈검진무소신김종슈노비슈계슈봉 교근
발하구이다



